

2022 년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심포지엄

# 이민자, 그 가치를 말하다 나눔을 넘어 나눔으로

2022 년 3 월 31 일 (목) 저녁 8 시

Zoom ID: 847 3698 1646    Zoom PW: 19651003

주최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후원

뉴욕교회협의회/뉴저지교회협의회/뉴저지목사회/KACE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 목차

### 이민자보호교회 3 대 비전과 6 대 행동

#### 1. 디아스포라의 성서적 고찰과 연대 ..... 3

김지선 교수 (Earlham 대학 종교대학원 교수)

#### 2. 반-흑인 정서의 기원과 전개, 한흑 공동체 화해와 연대 ..... 4

김재균 교수 (Davidson 대학 사회학과 교수)

#### 3. 디아스포라, 통합의 가능성 ..... 14

전후석 감독 (영화 감독)



# 이민자보호교회 3 대 비전과 6 대 행동

## 이민자보호교회 3 대 비전

첫째, 이민자보호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을 담당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둘째, 강도 만난 이웃을 책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다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긴급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을 담당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셋째, 세상살이에 힘든 모든 이민자들이 홀로 어려움을 당하게 두지 말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갖습니다.

## 이민자보호교회의 6 대 행동

첫째,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리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가 이민자들의 긴급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는 배너와 포스터를 붙여서 교회가 임시 피난처임을 알립니다.

셋째, 교회가 요청하면 이민관련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법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넷째, 추방이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 646-450-8603 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긴급 기도회의 날을 지정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실시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 "Invisible: Biblical understanding of diaspora & solidarity with immigrants"

### 디아스포라의 성서적 고찰과 연대

김지선 교수 (Earlham 대학 종교대학원 교수)

Invisibility persists throughout the Asian American story. On the one hand, xenophobia has long contributed to racism and discrimination toward Asian Americans. On the other hand, terms such as perpetual foreigner and honorific whites have been thrust upon Asian Americans, minimizing their plight with racism and erasing their experience as racial minorities. Even more indiscernible in America's racial landscape are Asian American women. The compounded effects of a patriarchal Asian culture and a marginalizing American culture are formidable, steadily removing the recognition of these women's lives, voices, and agency.

Invisibility is not only a racial and cultural issue, but also a profound spiritual issue. The Western church—and its theology—has historically obscured the concerns of Asian Americans. The Asian American church relegates women to domestic, supportive roles meant to uplift male leaders. This lecture will explore Invisibility as a theological and spiritual concept and see how we can work towards inclusion, liberation and embrace.



## 반-흑인 정서의 기원과 전개, 한흑 공동체 화해와 연대

김재균 교수 (Davidson 대학 사회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한 의미에서의 제 주장이나 견해만 얘기하기 보다는 소위 말해서 약간 쌀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함께 하려다 보니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학부생 시절 이후 한국말로 발표 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920 년대의 두개의 수프림코트 케이스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아시안 아메리칸 수업을 대학교에서 들으셨거나 입문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판례이죠.

하나는 Ozawa v. the United States 라는 1922 년의 판례고 다른 하나는 Thind v. the United States 라고 1923 년의 판례입니다.

두 판례 모두 아시안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항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판례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두 판례 모두 미국정부가 승소하면서 미국의 화잇 슈프리머시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Takao Ozawa 와 Bhagat Singh Thind 둘 다 비슷하지만 다른 주장을 펼치며 법적으로 자신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사실 이 당시 인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예전 독일의 인류학자인 Johann Blumenbach 의 다섯가지 인종의 범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루멘바흐는 백인이라는 인종의 근거로 두개골의 여러 부분을 측정 후 대칭 (symmetry)의 측면에서 봤을까 가장 잘생기고 (handsome) 알맞은 (becoming) 외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유럽 인근의 아시아지역 및 북아프리카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흔히 말하는 아시아인들은 당시 미국에서는



역시 블루멘바흐의 분류에 근거하여 Mongolian 이라는 인종적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여겼었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unfit" 하다고 여기면서 시민권을 법적으로 부여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적인 결정은 In re Ah Yup 이라는 1878 년의 판례에 따른거고 이후 오년이 지난 후에 Chinese exclusion law 를 공포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오자와, 그리고 영제국 식민지배 하의 인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미국 군인으로 1 차세계 대전에 잠시 참전하기도 하였던 싘드, 두 명 모두 다 자신들이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자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에 능통하고 이미 미국에 동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백인이라는 인종의 범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실질적인 백인의 범주는 문명의 정도에 따라야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자신이 왜 문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가를 주장하며 일본인인 자신은 우선 흑인이 아니며 다른 후진적인 아시안 국가들과는 다르게 문명을 이룬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백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본인 역시 몽골리안의 범주에 들어가며 아무리 일본이 문명적이라고 하여도 백인으로 분류할수는 없다고 하며 오자와의 주장을 각하합니다.

싘드의 경우는 자신이 높은 카스트 출신이며 자신의 조상은 Blumenbach 가 분류했던 Caucasian 들이 거주한다는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은 백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자와의 판례에서는 블루멘바흐의 인종 분류를 근거로 오자와의 주장을 각하했던 반면 이번인 백인의 범주는 그러한 학술적 분류가 아닌 커먼센스의 영역이라며 싘드는 커먼센스에 의하면 백인이 아니라고 하며 싘드의 주장을 각하합니다.

멜팅팟이라고 선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던 미국이 사실은 백인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두 판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인종주의에 저항을 하였는가입니다. 이들이 저항이 쉬웠다고 얘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많은 희생을 치뤄야 했죠. 하지만 그럼 오자와와 싘드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우리는 인종주의에 대항한 정의를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싸움은 아쉽지만 커다란 불평등의 구조에 저항을 한 것이 아닌 즉, 큰 틀인 화이트 수프리머시는 그대로 두되, 개인이 그 틀 안에서 자신들도 백인의 범주에 인정되고자 저항을 한 것입니다. 승소와 패소의 여부를 떠나, 이긴다 한들 화이트 수프리머시와 그에 따른 불평등한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없는겁니다. 물론 이들은 분명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내용의 중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저항의



역사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집단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저항의 역사이지만 인종주의의 큰 구조 자체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두 판례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 두 판례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먼저 말씀 드린 In re Ah Yup 의 판례도 중국인도 백인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는 아엽의 주장에 대한 기각이었죠.

이렇게 yellow peril, unassimilable alien 이었던 아시안아메리칸들은 오히려 최근에는 model minority 라고 불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희생을 해 왔고 그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성공의 보상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말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우선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단어의 뒤에는 racial triangulation 이라는 논리가 숨어있습니다. 아시안들을 백인과 흑인 사이에 두고 흑인들보다 뛰어나다고 올려주는 대신 백인보다는 부족한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Relative valorization 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럼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깐 다른 하나의 축도 필요하겠죠? 한쪽 축만 있다면 그냥 일차원적 위계질서라하지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 다른 한 축을 civic ostracism 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자면 쓸만은 하지만 미국의 시민사회에 속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종들이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는 불만을 갖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도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인종들이다 라고 하며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부른겁니다. 이말은 즉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흑인들을 비판하고 너희들도 이 아시안들처럼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disciplinary 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성공에 목이 말라있고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에 집중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수 있는 성공의 길이기도 하고 그나마 열려있는 성공의 길이기도 하죠.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 학자들이 이 모델마이너리티 담론을 화잇슈프리머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이야기들을 강조하지만 그 이유는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이 그만큼 쉽게 없어지지 않는 여전히 강한 담론이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줍니다.



즉 말하자면 모델 마이너리티 담론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담론이 구성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인종주의에 피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백인들보다 부족할게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미주 한인들에게는 떠올리기도 힘든 아픈 기억인 1992 년 사이구로 주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너무도 아픈 기억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사이구 이후 미주 한인 학자중 한분인 일레인 김 박사님께서 논문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요가 일어난 후 경찰은 한인들의 가게가 있는 곳은 전혀 지키러 오지 않고 백인들의 지역만 지키러 오고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한인과 흑인의 분쟁을 무슨 동물원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백인들의 무책임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강력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이득을 보지 않고 인종주의가 생기는 것에 하등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화잇수프리머시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소요에 휘말리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그 억울함은 한인들의 역사적인 한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어시밀레이션이 아닌 새로운 민족주의를 통해서 화잇 슈프리머시에 저항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에 흑인들도 비이성적인 폭력은 버리고 공통의 적인 화잇 수프리머시를 이겨내고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죠. 아마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은 합니다. 일레인 김 박사님의 주장과 비슷하게 당시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접한 흑인 학자들은 사뭇 다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우선 그들의 첫번째 주장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면서 모델마이너리티 담론을 추구하는 아시안들이 인종주의, 특히 antiblackness 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흑인 학자들은 아시안들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레인 김 박사님의 글도 이러한 점을 스쳐가며 언급합니다. 그 글을 보면 그러한 인종차별의 원인으로 자신들이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자본주의의 계급사회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유한 한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빙빙 돌려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흑인 학자들은 왜 한인들 그리고 아시안들이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동참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무지라고 축소시켜서 말하고, 자신들을



단지 아무런 죄가 없는 희생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시안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이구 당시 한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었죠. 한인들에게는 경찰은 시민들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인데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그 사실 자체가 한인들이 받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는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한인들에게 경찰은 시민들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이지 한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최근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경찰이라는 존재는 흑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의 폭력의 표상과 동일시 되는 존재입니다. 미국이라는 현재의 강력한 제국이 생기기 위해서는 노예제가, 아니 인종적 노예제가 필수적이었고 이 인종적 노예제는 흑인들에게 natal alienation, 출생 시 부터의 소외, social dishonor, 사회적 불명예, 그리고 naked violence, 혹은 gratuitous violence, 즉 아무 이유없는 무조건 적인 폭력을 거치게 했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사는게 아닌 social death, 즉 사회적 죽음을 겪었고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적어도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인종적 노예제로부터 시작된 antiblackness 는 아시안들이 겪는 인종주의와는 조금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인종주의에 대한 역사적 저항은 뿌리깊은 인종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한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은 오자와, 썬드의 판례를 넘어 아시아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열망으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집단의 사회적 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일레인 킴 박사님의 글 또한 유색인종들이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나아가자는 얘기로 끝을 맺지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백인들의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집단을 흑인들과 차별화하고 흑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에 동참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이민의 역사라는 사실을 등한시 한 채 말이죠. 사실 이러한 antiblackness 에 기반한 이민의 역사는 아시안 이민의 역사를 넘어 미국의 이민사를 꿰뚫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흑인들과 멀리하며 백인들에게 가깝거나 백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사회적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을 한 학자는 ethnic project 즉 민족적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최근의 많은 아시안 NGO 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적응, 즉 assimilation 을 도와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큰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잘 알려진 아시안 아메리칸 학자인 Dina Okamoto 박사님의 연구를 보면 한 아시안 아메리칸 NGO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 NGO 들이 기존의 국적을 넘어 아시안들끼리 함께 아시안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과의 연대는 흔치 않고 연대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아무래도 원하는 것과 문제인 것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르다. 이 말을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겁니다. 흑인들은 노예제로부터 시작된, 뿌리가 너무도 깊은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대해 싸워 올 수 밖에 없었고, 아시안들은 그 구조적인 인종주의의 틈에서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대항해 싸우기 보다는 흑인들의 고통은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넘어 백인들과 함께 흑인에 대한 차별에 동참하면서, 구조적인 인종주의는 그대로 놔 둔 채 자신들의 사회적 상승을 assimilation 이라고 여기고 American dream 이라고 여긴다고 말이죠.

자 다른 아시안들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것까지 모두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럼 한인들의 역사적인 antiblackness 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죠. 왜 도대체 한인들은 그렇게도 쉽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빠지는 걸까. 혹시라도 한국의 역사에서 뿌리깊은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의 흔적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구한 말 시대에 서양을 배우고 문명개화를 해야 한다는 담론이 한창이던 1800 년도 후반 1900 년도 초반에 몇몇 개화파 학자들 사이에 인종적 담론이 잠시 등장한다는 글을 보게되었죠. 그 글들은 뭐랄까 조금 일화를 소개하듯이 예전에 한국 지식인층 몇몇이 아쉽게도 잠시 사회진화론에 빠지게 되며 인종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도로 끝을 맺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연구를 시작해봤습니다. 혹시 인종 담론이 계속 된 것은 아닐까, 계속 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를 띠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말이죠.

사실 예전의 소위 개화파 학자들은 중국어, 일본어로 된 글을 통해서 이미 인종담론을 접했지만 이러한 인종담론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된 것은 한국 최초의 관용 신문, 1883 년 한성순보 기사로 시작합니다.



잘 알려진 Johann Blumenbach 의 다섯 인종설에 기반한 얘기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사실 그냥 세상에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함께 살게 되어가면서 분별이 무의미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얘기로 시작한 인종담론은 당시 한국인들이 점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식민주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척이나 강해지고 지배적인 담론이 되죠. 특히 을사조약으로 알려진 제 2 차 한일 협약에 즈음해서는 "남의 노예가 되어선 안된다" 라는 담론이 아주 지배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협약 이후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 (I wail bitterly today)을 쓰면서 나라를 잃게 되는 슬픔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는 사실은 아마 한국에서 국사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내용을 잘 모르셔도 제목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여기서 장지연은 이렇게 울부짖죠. 아 우리 이천만 동포가 남의 노예가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노예가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노예라는 것이 뭐길래 조선 한때 70 퍼센트의 인구가 노비였던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뭐길래 목놓아 슬퍼해야 했던걸까요? 그때 당시의 한국인들에게는 식민이 되는 것은 노예가 되는것이고 인종이 절멸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노예라는 맥락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인종적 절멸을 맞이하는 상황은 70 퍼센트가 노비였던 조선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즉 남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당시의 지배적 담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 흑인들 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인들에게 전달했던거죠. 그리고 저 흑인들 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건 단지 그냥 타산 지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담론에는 우리 같은 문화적 민족이 저 미개한 흑인들 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담긴 인종주의적 담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당시 애국지사들은 흑인들이 왜 미개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흑인들과 다르게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무수한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사실은 우리와 같이 식민주의에 고통을 받고 그것보다 더욱 참혹한 인종적 노예제에 고통받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공감이 아닌 우리가 왜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우리는 흑인들 같은 미개한 인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담론을 통해서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흑인들은 문화와 역사가 없는 인간이지만 인간이기도 부르기 어려운 인종이라 당연히 서구 열강에 식민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인종적 절멸을 맞이 하였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일본에 식민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지금은 잠시 백인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황인들 중 누구보다 우월한 인종인 한국인은 결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소위 말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 민족적 자긍심 뒤에는 항상



antiblackness, 즉 흑인성에 대한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하는 존재론적인 담론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인종적 담론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소위 애국 지사들이 인종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자긍심을 설파하였지만 결국 5년 뒤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요. 그러면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아... 나의 우둔한 인종주의는 우리의 독립을 가져오지 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라고 깨달았을까요? 아쉽게도 antiblackness는 더욱 강해지고 지식인들을 넘어 한국인이 공유하는 어떠한 가치가 되지요. 이러한 antiblackness는 독립선언서에 일본의 침략행위와 한국인들에 대한 폭력적 대우에 대해 규탄하는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은 일본이 한국인을 어리석은 토인처럼 대접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 토인이라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떠한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토인이라 함은 대부분 흑인들 아니면 종종 소위 말하는 "홍인" 즉 식민을 당한 원주민들을 의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인 같은 문화 문명인은 이런 흑인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기에 나는 독립을 선언한다 라는 의미죠.

삼일 운동이후 일제는 한국인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미국놈들이 흑인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몇몇 한국의 지식인들은 책상위에 올라가기 까지 하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감히 우리가 너희에게 식민을 당했다고 해도 너희가 우리를 흑인 같은 미개한 존재와 비교를 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면서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흑인과 같은 미개한 존재가 아니기에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식민이 되었고 결국 우리가 미개하다고 믿었던 흑인들과 어찌보면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antiblackness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계속되었던거죠. 이러한 antiblackness는 일본 경찰이 한국의 독립 투사들을 취조하는 경찰 보고서에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 독립 투사는 일본 경찰에게 연행을 당하고 독립모임에 관한 사실을 얘기하라는 일본 경찰의 압박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난 그날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 모임에 가자 마자 누군가 나에게 저 검은 흑인은 누구냐라고 모욕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 일은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악명높은 일본 경찰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만큼 흑인이라는 놀림은 참을 수 없는 놀림이었다는 것을 즉 antiblackness가 이렇게까지나 깊게 공유되는 담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antiblackness는 이후 일제 말기에 일본이 동남아 지방을 점령하고 한국인들이 그 동남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까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들은 식민지하에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닌 흑인들과 같이 열도에서 살고 있는 미개한 존재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토지는 미개한 그들은 흑인들 처럼 활용을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는 기회와 땅으로 한국인들은 상상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면을 볼 때 사실 한국의 최근 동남아 인에 대한 인종주의는 역사적으로 antiblackness 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감히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극도로 힘들었던 일제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이렇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흑인이 아니기에 독립할 수 있고 독립을 해야만 하고 독립을 하게 될거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누군가처럼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습디다. 하지만 antiblackness 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독립 투사들의 독립의지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의 찬란한 경제 발전 역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띠었을지도 모르죠.

사실 이러한 antiblackness 는 발현된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을 했던 일본, 식민을 반쯤 당했던 중국과 달리 존재적인 위협을 가장 크게 느꼈던 한국은 존재적 위협을 그만큼 컸던 만큼 어떤면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antiblackness 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한인들이 단지 무지에서 비롯해 흑인들을 간혹 멸시한 것이 아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antiblackness 를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 저 흑인들도 요즘들어 코로나를 가져왔다고 하며 우리에게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그들과 연대를 해야하고 그들의 사정을 봐줘야 하나 말이죠. 분명히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흑인들도 있고 그러한 폭력의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racial triangulation 에서 다뤘던 아시안들의 대한 civic ostracism, 시민사회에서의 배척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외국인 대접을 받고 폭력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civic ostracism 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social death 사회적 죽음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흑인들이 겪는 폭력은 gratuitous, 즉 아무런 이유없이 상시 존재하는 위협이고 어떠한 컨텍스트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란츠 파논이라는 프랑스 제국하의 마니틱출신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흑인이 경찰에게 묻는 가장 말이 안되는 질문은 왜 나를 쫓느냐는 것이다. 즉 gratuitous violence 에 대한 답을 원하는거죠. 하지만 그러면 경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흑인인니까 쫓지. 그리고 내가 너를



쫓으니깐 너는 흑인인거야. 즉 흑인이 제국의 폭력을 받는 이유에는 어떠한 이성적인 대답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슬레이브 마스터가 어느날 갑자기 행할 수 있는 폭력인거죠.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폭력인겁니다. 물론 저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부터 마스크를 써도 눈치가 보이고 마스크를 안써도 눈치가 보이고 왠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고 왠지 우리의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는데 신경써야 했었죠. 그리고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이 중국놈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는 말을 들으면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겪어오는 폭력은 어떤 면으로는 말도 안되는 비논리 이지만 어떤 면으로는 어떠한 맥락이 존재하는 조건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력을 겪으며 경찰과 국가의 보호를 외치겠죠. 물론 백인들 만큼 보호를 받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의 편을 든다기 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억압하는 인종주의에 사실은 동참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제 넘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종간 연대라는것은 특히 흑인과 한인의 연대라는것은 말하자면, 자 너희 흑인들 너희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너네 그런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폭력성을 버리고 우리를 따라와 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면 안되고 그렇게는 연대가 형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뿌리깊은 antiblackness 를 계속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인종주의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먹고 살려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정의롭지 않은 인종주의를 만드는데 큰 동참을 했으며 그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넘어 소위 자긍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소위 말하는 부분적인 "성공" 을 거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적어도 인종주의에 아무런 참여를 하지 않은 인종주의에 핍박만을 받은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흑인들과 한인들의 연대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성찰과 역사적 반성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후석 (영화 감독)

## 디아스포라, 통합의 가능성

###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었지만 현대 사회과학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국에서 떠나 타지에서 본국의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며 사는 이들을 일컫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인이지만, 본국 인구대비 해외에 많은 동포들이 사는 국가들은 보통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등이 자주 거론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될까?

대륙	국가	외교부 통계 (2019)
아메리카	미국	2,546,982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2,461,386
아시아	일본	824,977
아메리카	캐나다	241,750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77,270
아시아	베트남	172,684
유럽/아시아	러시아	169,933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67,331
아시아	카자흐스탄	109,923
아시아	필리핀	85,125
아메리카	브라질	51,450



유럽	독일	44,864
유럽	영국	40,770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38,114
유럽	프랑스	29,167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23,063
아시아	인도네시아	22,774
아시아	싱가포르	21,406
아시아	말레이시아	20,861
아시아	태국	20,200
아시아	키르기스스탄	18,515
유럽	우크라이나	13,070
유럽	스웨덴	12,721
아시아	캄보디아	11,969
아메리카	멕시코	11,897
아시아	인도	11,273
아시아	아랍에미리트	10,930
유럽	덴마크	9,581
유럽	네덜란드	8,601
유럽	노르웨이	7,667
기타		110,502
전체		7,493,587



2019년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세계 전역에 약 750만명의 재외동포가 살아간다. 그러나 저 지표에는 한인 입양아들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1950년 한국전쟁부터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들의 숫자는 약 20만명이라고 추정하는데, 비공식적인 수치는 두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또한, 1950년부터 입양된 이들이 해외에서 한인 혹은 현지인을 만나 결혼하여 단 1명의 자녀만 낳았다고 가정하여도, 20만명의 2배인 40만명이 된다. 그렇다면 외교부의 공식자료보다 적어도 40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해외에 800만명에 육박하는 재외동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약 16%, 남북한 합한 한반도 전체 인구의 약 10.7%에 이른다. 800만명은 서울 다음으로 큰 3개 도시, 부산, 대전, 대구의 모든 인구를 합한 숫자(730만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그만큼 많은 한인들이 한반도 밖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디아스포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디아스포라들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나?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과 별개의 존재인가, 혹은 우리의 일부이자 연장선인가?

이 질문들은 헤로니모를 작업하는데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해외에 사는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 한반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헤로니모를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에 기반하였지만, 그에 대한 작업을 결심한 배경에는 저자인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한반도 밖의 한인들, 즉 디아스포라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고민이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한반도 밖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숙명을 갖고 있는 이들의 정체성.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다.

## A. 정체성 고민 (한국편)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만 3살때 가족과 함께 들어와 평범한 한국인으로서 자라났다. 한국은 세계에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이다. 공식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가장 결여된 나라 2위, 북한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적 배경에 결여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물론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는 철학적/정치적/종교적/성적 정체성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주제로 삼을 정체성은 우리 자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요소인 인종적/민족적 개념이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성격을 띄는데, 자라나면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정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가변하다. (물론 현대시대는 국적을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는 시대다).

나는 한국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정규과정을 수료했는데 단 한번도 같은 학급에,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 외국인을 본 기억이 없다. 그 말인즉, 적어도 인종적, 문화적, 국가적 맥락에서 나는 다양성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즉, 나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혹은 그 당위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없었다. 이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의 한인됨을 고민 혹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B. 정체성 고민 (미국편)

자각하지 못하던 자신의 “한인됨”이 자각되는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면서 일어났다. 18 살때 미국으로 (돌아)오며 나는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느낌에 강력하게 반응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때 미국에 왔던 경험도 있었지만, 자아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청소년기 말에 미국에 왔을때, 나는 과연 내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시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당시 내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한국성 (Koreanness)를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특별히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다만 미국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수동적 태도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Koreanness 를 되도록 배제하고 최대한 미국화, 주류화, 백인화 되려는 노력을 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그 두가지였다. 나는 후자를 택했고 백인화/주류화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미국화 되어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들과하고만 어울리려는 의식적 노력을 택했다. 이 노력은 고등학교 말부터 대학교내내 이어졌는데, 대학교 2 학년 말때, 나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1992 년 LA 폭동 사건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였는데, 이 사건은 Korean American, 즉 재미 한인이라는 정체성의 탄생을 - 그 필요성을 -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 1992 년,



흑인을 폭행했던 백인 경찰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그 후 72 시간 동안 흑인들과 라틴계,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LA에 위치한 한인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다. 왜 그들은 한인들을 공격했을까? 한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고용했던 직원 혹은 손님이었던 다른 소수계들에게는 공격을 받았고 자신을 보호해야될 미국 경찰 등 공권력에겐 무시당하며 주류 언론으로부터는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어메리칸 드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적 경험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인들은 외부적으로는 권력신장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는 다른 소수 민족과의 화합과 우리 내부에 있는 인종차별적 근성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한인 이민자” 성격이 강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재미 한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은 현지화를 뜻한다. 철저히 미국화/주류화가 되는 작업이다. 미국화 주류화가 되는것은 정치/경제/언론/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LA 폭동사건을 배우면서 그 전까지 고민하던 “한국인”이 될것인지 “미국인”이 될것인지의 기로에서 제 3 지대의 대안을 찾았다. 그것은 “재미 한인” (Korean American)이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미국내 소수민족으로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였다.

### C. 정체성 고민 (디아스포라)

나는 재미 한인으로서의 내 스스로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가졌던 직장은 연변에서였다. 2007년에는 중국이 향후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등장하던 때였다. 나는 그런 중국을 경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관심은 중심도시에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자리가 아닌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자치주에 있었다. 마침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구인광고를 보았고 한 학기 동안 홍보팀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주로 교내 영상촬영과 제작, 또 중국 한족들에게는 한국어를, 조선족 친구들에게는 영어를 과외하며 한 학기 동안 연변을 경험하였다.

나는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며 세계관이 변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 전 까지만 해도 나의 모든 관심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사이였는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한 정치/사회/지리학적 위치에서 생성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은 미국처럼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을 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십년간 공산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한족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많은 조선족 친구들은 자신이 당연한 중국인이라고 여기었고 자신의 한인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민족정신이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그 몇몇의 친구들이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재미 한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의 있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구나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독일 배낭여행을 갔을 때 독일 후손들이, 브라질 인턴십을 갔을 때 브라질 한인 후손들이,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거기 교민들과 후손들이, 대학 때 활동하던 탈북자지원 단체에서 교류했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만난 한인 입양아 친구들 등, 각 나라마다 각자 자신이 자각하는 혹은 외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씨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한반도 밖에서, 혹은 대한민국으로 회귀했지만 속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연 “한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인가?

이런 고민의 성격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원인은 같다. “한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물론 이 고민은 유독 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던지 자신의 조국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인구 대비 유독 해외에 많은 디아스포라를 둔 Korean 은 그 “흩어짐”이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는 점, 즉 많은 이들이 강제로 또 많은 경우 단체로 (하와이 사탕수수, 멕시코 애니깽, 사할린/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일본 강제노동, 만주 독립운동, 독일 탄광/간호사, 중동 개발 등) 떠났고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독재, 경제위기 등 여러가지 이유로 회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진정 “떠나려고 떠났던”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 고민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배경적 특별함이 존재한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나름대로 각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찾았기에, 아직 그러지 못한, 무방비로 남겨진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한국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이 정체성 이슈에 고민하는 디아스포라들은 기본적으로 확장된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자신이 노출된 세계가 단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 본인의, 혹은 가정에서 배우고 축적된 문화적, 도덕적, 역사적 가치관이 가정 밖 현지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다르고 충돌할 때 그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질적 두 세계에 대해 납득 혹은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자아에 대한 탐구와 질문은, 철학적 혹은 신앙적인



고뇌와 유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존재론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존재론적인 고민을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야 말로 단일 문화권에서 자라나는 이들보다 더 풍성한, 깊은 자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저 이질적 두 세계 -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현지인으로서의 정체성 - 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이해하여 내면화하여 삶을 영위하는 디아스포라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니모 임을 발견했을 때 나는 큰 희열을 느꼈었다. 그가 이중/다중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인으로 시작했던 정체성에서 재미한인이 되는 경험을 하였고, 나같이 해외 각지에 살아가는 여러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100 퍼센트 쿠바인(현지인)이자 100 퍼센트 한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헤로니모 선생의 모습에서 디아스포라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태도와 이상을 보았던 것이다.

#### D. 정체성 고민 (세계시민)

한국인 - 재미한인 - 디아스포라의 순서로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 발전되어 “민족주의” 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그것은 자아를 인식하는데 있어 건강한 과정이나 목적이 결여될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건강한 정체성의 여정은 편협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많은 위인들이 있다. 마틴루터킹 주니어 목사, 간디, 만델라, 도산 안창호 등,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민족, 인종, 국가적으로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에서 탄압받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신념으로 움직인 자들이 아니었다. 해방 혹은 평등을 이룬 이후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포용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민족주의 이상의 이념과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로 “인본주의”에 바탕한 세계시민성이 그것이다.

정체성 여정의 끝이 민족주의나 편협한 애국주의, 국수주의가 아닌 이상적인 도착지점은 바로 “사람에 대한 보편적 인류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나 신앙도 그렇다. 신 혹은 더 고결한 가치의 철학에 대해 알게 되며 삶의 목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약한자와 소외된 자들을 공황이 여기는 것이 종교와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정체성의 깨달음은 스스로의 인종/국가/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속성이 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때, 다른 문화권의 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세계시민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내가 자라온 환경과 현재 살아가는 환경에서 기인한 것일 것이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대부분은 단기 선교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였는데,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요르단 등을 방문하며 현지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었고, 미국의 여러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세계를 접하며 다양성에 대한 원만한 이해와 수용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아시안계”로서 느끼는 불완전한 소속감을 통해 결국 온전한 소속감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인간애에 기반한 것임을 깨닫는다.

## 5. 디아스포라를 통한 시대적 대의 해결

“디아스포라의 본질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혁신을 낳는다”

헤로니모 영화를 촬영하다 만났던 유태인 랍비의 인터뷰다. 상당수의 디아스포라가 해외에 가게 된 과정은 고통을 수반했지만, 여러 문화가 충돌하며 합쳐지며 그들은 자신만의 혁신적 정체성을 탄생시켰다. 조국의 전통과 가치관이 현지의 토양과 결합하며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은 이민 1 세대의 고통을 혁신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과연 기존의 방식과 전통적 가치관, 단일성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시대적 대의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한국인들에 대한 수용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아,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인이 되고 싶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외국 노동자들, 이주민들, 난민, 다문화 가정 등 서양권에서 온 이들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각, 자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실제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결여된 나라이고 또 이 다양성의 부재로 인한 포용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 일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나 자문해봐야 한다. 그들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온 “헤로니모”가 여럿 숨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 혹은 부모가 떠난 조국에서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 씩씩하고 고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줄 수 있는 관대한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이 되어야지만 그들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편협한 민족/국수/애국주의를 지향할 때,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디아스포라 역시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나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한국인들이 세계시민 정신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0 만명의 한인들이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 외국인으로,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이주자로, 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한국인들은 우리 사이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 난민들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한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또한, “디아스포라”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살아 숨쉬는 개념으로서, 한국에 살아도 해외에 나가는 순간 본인이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음을, 디아스포라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꾸미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다른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념도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쉽게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다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격이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한국인이란 비단 문화와 인종과 국적이 다른 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는 2 천 500 만명의 동민족이 존재한다. 비록 같은 역사를 갖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는 70 년 이상 분단되어있었다. 정치적, 이념적, 지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적 장벽들의 무게가 감상적 회상과 희망을 짓누른다.

디아스포라는 공교롭게도 통일 과정에 더 객관적인 시각과 접근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념적으로 치우친 개개인들은 있을 수 있으나, 디아스포라는 국내 현실정치의 감정적 개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남북이 갈라지게 된 이유와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결국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기에 디아스포라의 스토리들이 재조명 됨으로서 우리는 통일이 단순한 남북간의 지리적 결합뿐만이 아닌,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모든 이들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 6. 끝맺음

우리 세대의 디아스포라는 혁신성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을 야기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남북한의 화합은 물론 한국인이 되려는 새로운 종류의 이들 역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헤로니모 임 선생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100 퍼센트 현지인 쿠바인이었으며 100 퍼센트 한인이자 디아스포라였고, 동시에 100 퍼센트 인간애를 품은 세계시민이었다. 그의 초월적 삶은 바로 그가 디아스포라였기에 가능했고, 그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자신보다 더 큰 시대적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 다문화와 이주민 수용,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더 공고한 개념화와 연구가 이어져야 될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_시 46:1

God is our refuge\_Psalms46:1

神是我们的避难所\_诗篇 46:1

DIOS es nuestro amparo\_Salmos 46:1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A Church Is A Sanctuary

让教会成为您的避难所

La Iglesia Será Su Amparo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